

고강알루미늄지회 전면 파업 100일, 단협 일방 해지 철회

사측 성실 교섭 약속 ...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31년 민주노조 지키겠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 지회가 전면파업 100일, 점거 농성 2일 만에 단체협약 해지를 막아냈다.

알루코 자본은 12월 5일 단협 해지 통보를 철회하기로 했다. 박석봉 부회장을 교섭 대표로 성실하게 교섭에 나오기로 합의했다. 지회는 이 같이 합의하고 우선 본사 점거 농성을 풀었지만, 파업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와 울산지부, 서울지부는 12월 5일 지회 전면파업 100일을 맞아 서울 서초구 알루코 본사 앞에서 ‘고강알루미늄 생존권 시수 금속노조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열었다.

지회는 12월 4일부터 서울로 올라와 박도봉 알루코 회장 면담을 요구하며 회장실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경찰은 서울사무소가 입주한 평화빌딩을 원천봉쇄하고 출입을 막았다. 지회는 “농성 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낸다면 문재인 정부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며 강력히 투쟁했다.

지회는 단협 해지와 임금 삭감 등의 탄압은 알루코 그룹 안의 유일한 민주노조인 고강알루미늄지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규정하고, ‘민주노조 시수’를 위해 물러섬 없이 싸웠다. 지회 조합원들은 “30년 넘게 뼈 빠지게 일한 대가는 값이야 할 대출금과 교육비뿐이다.



박도봉 회장은 계열사를 자녀와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1백억 원도 넘게 챙겨간다”라고 지적해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 투쟁사를 통해 “금속노조 정신에 따라 투쟁기금이 모자란 투쟁사업장과 신규 조직의 투쟁을 지원하겠다. 금속노조를 믿고 가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강수열 노조 울산지부장은 투쟁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을 배제하고 있다. 노동자가 먹고사는 문제는 노동자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울산지부는 고강알루미늄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책임지고 함께 가겠다”라고 결의했다.

5일 투쟁 문화제에서 많은 울산지부 지회가 투쟁기금을 모아 전달했다. 특히 지난 9월 금속노조에 가입한 보성테크지회는 조합원이 40명에 불과하지만,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투쟁기금을 모았다.

강태희 고강알루미늄지회장은 “알루코 자본은 단협 해지를 일방 통보해 노사 관계를 파국으로 몰았다. 노조는 단협 해지 철회와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전면파업으로 맞섰다. 이번 합의는 정년퇴직을 앞둔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원 아흔일곱 명이 단결해 31년 역사의 민주노조를 지켜낸 투쟁이다”라고 평가했다.

강태희 지회장은 금속노조와 울산지부 조합원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어 단협 해지를 철회시켰다며 고맙

다는 인사를 전했다. 강태희 지회장은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측의 단협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계속 파업투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알루코그룹 박도봉 회장은 회사 생존 방안이라며 계열사 고강알루미늄의 단협을 해지하고 1인당 연봉 2500만 원과 상여금 삭감, 연월차 축소, 노조 활동 축소 등 35개 단협 개악안을 일방 통보했다. 앞으로 5년 동안 노동쟁의와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말자는 요구도 했다.

지회는 그룹 안 유일한 민주노조인 고강알루미늄 지회를 말살하고, 살인 구조조정으로 경영 악화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술책으로 보고 투쟁에 돌입했다. 지회는 지난 7월 17일 서초동 본사 앞 노숙 농성을 시작으로 100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회는 일단 단협 해지는 막았지만, 알루코 자본은 계속 단협 개악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쟁의대책위를 통해 향후 투쟁계획을 세워 대응할 방침이다.

“시간 끌어봐야 소용없다. 노조는 준비 다했다”

현담산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 ... “사측, 정상화할지, 결품 낼 것인지 각오해야”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경주지부 조합원들이 현담산업지회 투쟁 승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금속노조가 12월 6일 현담산업 아산공장에서 ‘현담산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경주지부와 충남지부 확대간부, 조합원 600여 명이 참가해 현담산업에 경고의 뜻을 전달했다.

현담산업은 자동차 연료펌프를 만드는 회사로 아산과 경주에 공장이 있다. 아산공장과 경주공장 조합원들은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과 노조파괴 시도에 맞서 파업 119일, 공장 농성 109일을 벌이고 있다.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금속노조가 어떤 노조인지, 산별노조가 어떻게 투쟁하는지 일본 자본이 잘 모르나 보다. 이미 전국의 금속노조 동지들이 현담산업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라며 “일본 아이산 자본이 금속노조를 무시한다면 투쟁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18만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이 투쟁이 승리하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격려했다.

금속노조 현담산업지회는 일본 아이산 자본이 추진하는 외주화에 맞서 회사를 분할합병할 경우 고용 승계를 약속하는 단체협약을 요구했다. 지회는 회사에 고용안정, 임금인상, 노조



인정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지회의 요구를 받지 않고, 범무법인 LAB 파트너스를 내세워 교섭을 공전시키는 등 노조파괴 작업을 벌였다.

김규현 노조 충남지부 현담산업지회장은 “아이산 자본이 아직도 한국을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회사의 한 축인 노동자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회사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며 “투쟁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의 기대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노조 할 권리를 바로 세울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명심 노조 경주지부 현담산업지회장은 투쟁 발언에서 “회사가 비상식적인 교섭행태를 보이며 자신들의 무능을 드러냈다. 회사가 LAB파트너스를 내세워 탄압해도, 조합원들은 장기파업을 유지하며 잘 대응하고 있다”라며 “조합원들은 기업노조 조합원일 때 노조 투쟁이 자신의 투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투쟁으로 조합원들이 노조의 주

인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현담산업의 시간 끌기에 맞서 노조와 경주지부, 충남지부가 현담산업지회를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원영 노조 충남지부장은 “회사가 원청을 들먹이며 파업을 풀고 일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금이라도 요구안을

수용하면 당장이라도 공장이 다시 돌아간다. 자본이 어려운 길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원영 지부장은 “아이산과 현담산업 자본이 노조의 요구를 받고 공장 정상화를 할 것인지, 현대차에 결품을 내고 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 왔다. 시간을 더 끌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고 경고했다.

정원영 지부장은 “경주와 충남지부는 동지들의 생활자금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 이후에 금속노조의 장기투쟁기금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라며 “금속노조는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 회사가 끝까지 가길 원한다면 확실히 무릎 꿇리는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단언했다.

결의대회 참가 조합원들은 ‘노동탄압’, ‘아이산·현담자본’, ‘LAB파트너스’, ‘고용불안’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망치로 때려 부수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 408일 오기 전에...”

파인텍지회 굴뚝 농성 390일, 교섭 요구 오체투지 시작 ...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 나서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와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두 번째 408일’ 이 오기 전에 홍기탁, 박준호 두 조합원을 땅에서 만나겠다며 오체투지에 나섰다. 지회와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출발해 서울 목동 스타플렉스 사무실까지 4박 5일 동안 오체투지를 벌인다.



노조 파인텍지회와 <스타플렉스파인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은 12월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파인텍 문제 해결 촉구, 끝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체투지를 시작했다. 지회와 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교섭조차 거부하는 스타플렉스 김세권의 노골적인 책임 회피 앞에서 형식적 중립만 지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회와 공동행동은 파인텍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 직접 교섭 ▲스타플렉스 음성공장으로 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 승계를 요구

하고 있다. 지회는 “파인텍은 지난 2014년 차광호 조합원의 408일 굴뚝 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한 유령회사임을 확인했다. 원청인 충북 음성 스타플렉스 공장으로 파인텍 조합원 다섯 명의 고용과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승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차광호 파인텍 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굴뚝 위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 운지 잘 알고 있다. 땅 위에 있는 조합원 세 명은 굴뚝에 있는 홍기탁, 박준호 조합원을 살리기 위해 오체투지를 시작으로 끝장 투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1년 가까이 일주일에 한 번 굴뚝 위로 밥을 올려보내는 한국천주교 여지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최인엽 수녀님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는 스타플렉스가 노동자들과 약속한 고용·노조·단체협 승계를 지키도록 앞장 서달라”라고 촉구했다.

홍기탁, 박준호 조합원은 비좁은 공간에서 운동량이 부족하고, 불충분한 영양 섭취로 면역력이 저하하는 등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다. 정신 스트레스도 심각한 상황이다.

두 달 간격으로 두 조합원을 검진하고 있는 길벗한의사회 오춘상 한의사는 “수족냉증 등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목과 허리 등에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심하다”라고 전했다. 오춘상 한의사는 “의학으로 도움을 준다고 건강상태가 나아질 상황이 아니다. 땅으로 내려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진단했다.

오체투지를 시작하자 경찰은 ‘불법 시위’라며 노동자와 시민들을 막았다. 오체투지 행진 가장 앞에 선 문규현 신부가 아스팔트 바닥을 기어 경찰의 부당한 저지선을 뚫었다.

유성기업 회장 박주는 경찰, 유성기업 노동자는 즉각 수사

편파 법 집행 사과 촉구 경찰청 기자회견 ... “유시영 회장 횡령 범죄 신속하게 수사하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가 경찰의 자본 박주기 수사를 비판하고,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 혐의를 바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지회는 12월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유시영 회장 배임 혐의 수사촉구, 편파 공권력 사용 경찰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같은 시간 충남 아산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불법행위인 노조파괴를 위해 14억 원을 창조건설탕에 지급했다. 유시영 회장의 민·형사 재판 변호비용에 회삿돈을 사용했다.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다. 유시영 회장은 자신의 변론을 위해 회삿돈으로 김앤장, 태평양,

지평 등 유명 법무법인 소속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경찰에 유시영 회장 배임과 증거인멸을 고소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 움직임이 없다”라며 “우발 사건은 즉각 조사에 나선 경찰이다. 유시영 회장도 즉각 조사하는 공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